釋讀口訣의 處格·冠形格 複合助詞

김지오*

要約

석독구결의 처격·관형격 복합조사에는 '𞟡𞟢(앗)' 이외에도 '𞟣𞟢(읫)', '𞟤𞟢(긧)'이라는 형태가 더 존재한다. 다양한 의미 유형을 갖는 15세기 국어의 '앳'과 달리 석독구결의 처격·관형격 복합조사에서는 두 가지 유형만이 확인된다.

첫 번째 유형은 선행명사에 구체적인 장소·시간이 제시되고, 후행명사에는 그 장소·시간에 존재하는 유정물·무정물(사건)이 제시되는 유형으로, 이들은 '~에 있는, ~에 존재하는'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유형은 선행명사에 집단이나 범주가 제시되고, 후행명사에는 그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나 그 범주의 등급이 제시되는 유형으로, '~중에서, ~가운데, ~의'로 해석된다.

한편 처격조사 '아'는 향가 자료에서만 확인되는 형태로 석독구결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 이는 우연한 공백이 아니라 형태의 부재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향가에 사용된 단독 처격의 '良(아)'가 다른 처격조사들로 대체되는 정황들도 포착된다. 따라서 석독구결의 '𞟡𞟢(앗)'이 형태적으로는 향가의 '阿叱(앗)'을 계승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독 처격 '아'의 쇠퇴로 인해 '𞟡𞟢(앗)'의 '𞟡(아)'가 보여주는 문법적 기능은 '𞟡𞟠(아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𞟣𞟢(읫)'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𞟣𞟢(읫)'은 형태상으로는 특이처격의 '𞟣(의)'와 관형격의 '𞟢(ㅅ)'으로 분석되지만 '𞟣𞟢(읫)'의 '𞟣(의)'가 보여주는 문법적 기능은 '𞟣(의)'가 아니라 '𞟣𞟠(의긔)'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초빙교수

핵심어: 복합조사, ᄋᆞᆺ(앗), ᄋᆞᅀᆞᆺ(읫), ᄀᆞᆺ(긧), 처격, 관형격, 석독구결.

1. 서론

한국어에서는 조사와 조사가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격조사끼리의 결합을 복합격조사라고 하는데(이숭녕: 1981, 이광호: 1991) 이 가운데 처격조사와 관형격조사가 결합한 구성이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에의'의 형태로,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앳/엣/옛', '잇/읫'의 형태로 출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성은 중세국어 시기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풍현(1977/1999), 박진호(1998), 김선효(2009a)에서는 향가의 '阿叱(앗)'과 석독구결의 'ᄋᆞᆺ(앗)'이 여기에 해당하는 형태임을 거론한 바 있어 처격·관형격 복합조사의 출현이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앗'이 '앳/엣'과 '에의'에 대응되는 형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접할 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왜 '앗'이라는 형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차자표기 자료에서 처격조사는 그 어떤 조사들보다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던 조사였고, 관형격조사 역시 현대국어와 달리 두 가지 형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처격과 관형격이 결합한 복합조사는 훨씬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것이 기대된다. 석독구결만 보더라도 처격조사는 'ᄀᆞ(긔), ᄋᆞ(의), ᄋᆞᆺᄀᆞ(아긔), ᄋᆞᄀᆞ(의긔), ᄂᆞᆫᄀᆞ(여긔)'로 실현되고, 관형격조사도 'ᄉᆞ(ㅅ)'과 'ᄋᆞ(의)'로 실현되므로 이들을 조합한다면 10가지 형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의 '앳'과 마찬가지로 처격·관형격 복합조사의 구성에서는 'ᄉᆞ'만 관여하고 'ᄋᆞ'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5가지로 줄어든다. 경우의 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석독구결에서는 '十七(긧), ᄀᆞ七(읫), ᄀᆞᆞ十七(아긧), ᄀᆞ十七(의긧), ᄋᆞ十七(여긧)'이라는 여러 조합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했던 '앗' 이외에도 처격·관형격 복합조사의 다른 형태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에 본고에서는 석독구결에 사용된 처격·관형격 복합조사들 중, 지금까지 알려진 'ᄀᆞᆞ七' 이외에 어떤 형태가 더 나타나는지, 그리고 나타난다면 'ᄀᆞᆞ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승희(2009)의 기술과 같이 15세기의 '앳'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석독구결의 'ᄀᆞᆞ七'은 어떠한지, 그 의미 유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편 처격·관형격 복합조사는 처격과 관형격으로 분석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렇다면 석독구결의 'ᄀᆞᆞ七'도 'ᄀᆞᆞ'와 '七'으로 공시적 분석이 가능해야 하지만 석독구결 자료에는 'ᄀᆞᆞ'란 단독 처격이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된다. 또한 'ᄀᆞ七'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다. 'ᄀᆞ七'에서 분석된 'ᄀᆞ'와 석독구결에서 단독 처격으로 사용된 'ᄀᆞ'의 문법적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3장에서는 이들 복합조사의 형태 분석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도 논의해 볼 것이다.

2. 복합조사의 출현 형태와 의미 유형

석독구결 자료를 살펴보면 처격과 관형격조사가 결합한 복합조사에 'ᄀᆞᆞ七(앗)'뿐만 아니라 'ᄀᆞ七(읫)'과 '十七(긧)'이라는 형태들이 더 확인된다. 'ᄀᆞᆞ七'은 33회,[1] 'ᄀᆞ七'은 4회, '十七'은 1회로, 'ᄀᆞᆞ七'의 출현 빈도

1) 'ᄀᆞᄒᆞ'의 용례 중에 'ᄀᆞ十'가 'ᄀᆞᄒᆞ'으로 잘못 기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가 있어 이는 제외하였다. "仁ㅁ 亦ㅅㄱ 當ㅅ 於此ㅢ 會ᄒᆞ 中ᄀᆞᄒᆞᄉᆞᄀᆞㅅ 修行ㅅㅁㄱㄱㅌᄒᆞ 勝功德ㄹ 演暢ㅅㅁㅅㅁㅍ <화엄08:24>"가 바로 그것이다. 'ᄀᆞ

가 압도적으로 높다.

2.1. ᄋᆞᄉᆞ(앗)

15세기 국어의 '앳'은 句뿐만 아니라 節에 연결되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석독구결의 'ᄋᆞᄉᆞ'은 명사구에 연결된 예들만 나타나고 節과 연결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ᄋᆞᄉᆞ'과 연결되는 선행 명사구는 '一切 世間(2회), 大海(2회), 大地, 內, 天上, 中, 東·西·南·北方, 頂上, 空谷' 등과 같이 장소 또는 위치,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道, 法藏, 獸, 道樹'와 같은 추상 명사, 그리고 '十千劫'과 같은 시간 명사도 소수 확인된다.

한편 15세기 국어의 '앳'은 단순히 '~에의'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에 있는 ~에서 난, ~에서 온, ~에서 하는/하던, ~를 가진, ~에 해당하는' 등 다양하게 해석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승희(2009)에서는 '앳'이 이처럼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을 처격조사 '애'의 다양한 의미에서 도출된 현상으로 파악한 바 있다. 'ㅅ'은 선행명사구를 후행명사구에 통사적으로 연결하는 기능만을 하므로 실질적인 의미는 'NP1+-애'가 'NP2'에 대해 갖는 관계 양상에 달려 있고, 처격 '애'의 다양한 의미에 의해서 '앳' 구성 역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앗'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석독구결에 나타난 처격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세기 자료의 처격조사는 '처소, 시간, 방향, 대상, 이유, 기준, 범위, 자격(수단), 상태' 등 다양한 의미로 실현된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

ᄒᆞ' 뒤에 동사 'ㅆᅳ'가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中ᄀᆞᄐᆞㅆᄀᆞㅂ'의 잘못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분의 현토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것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한 요인이 된다. 'ᄀᆞᄒᆞㅆᄀᆞㅂ'의 'ㅂ'를 원본 이미지를 찾아보면 'ㅅ'로 나타나 있는데 연결어미 뒤에 'ㅅ'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역시 'ㅂ'의 잘못으로 보인다.

료에서는 'locative' 본연의 의미에 충실한 '처소'와 '시간'의 의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격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인 양상을 띤다. '처소'와 '시간'만큼 많은 용례는 아니지만 '방향'이나 '대상', '기준', '범위'의 의미를 지닌 예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반면[2] 자격(수단), 이유, 상태 등의 의미는 거의 확인할 수 없다.[3]

이렇게 15세기 처격과 비교하면 석독구결에 나타난 처격의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𞟢七' 구성 역시 15세기 '앳'과는 달리 제한적인 의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석독구결 자료 속에서도 '𞟢七' 구문의 의미는 두 가지 유형만이 확인된다.

먼저 '𞟢七'의 첫 번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선행명사에 구체적인 장소·위치·시간이 제시되고, 후행명사에는 앞에서 제시된 처소(시간)에 존재하는 유정물·무정물(사건)이 제시되는 유형이다. 이때 '𞟢七'은 '~에 있는, ~에 존재하는'으로 해석되며 '𞟢七' 구성 안의 처격조사는 '처소, 시간'의 의미를 갖는다.

---

2) '방향'은 '학교에 가다'처럼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佛ㅁ 衆會道場ㅋㅓ 入ノアㅁ<화소23:15-16>"와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향'은 보통 이동 동사나 착발 동사의 지배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처소 명사에 처격이 결합한다는 점에서 '처소'와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대상'이란 앞말이 행위나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其 味ㅋㅓ 貪ア 不ソナカ<화소09:16>, 半月ミ 一月ミノ令ヲㅓ 說カ <화소25:07-08>"와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5세기 국어에서 처격이 '걷ᄒᆞ다', '다ᄅᆞ다'의 지배를 받을 경우 '기준'의 의미를 갖는데 '其 事ヲㅓ 同ソナㅋ<화엄18:11>', '佛ㅁ 出家ソるオ刀ヲㅓ 同ソㅋハ<화엄03:13>'와 같은 예를 통해 '기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위'는 '파충류에 무엇이 있지?'처럼 앞말이 제한된 범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正說法ㅋㅓ 略ロ刀 二種 有セ丨<유가04:08>"와 같은 예가 있다.

3) '자격, 이유, 상태' 중에서 본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예는 '자격'의 의미뿐이다. 처격조사 'ㅓ'의 경우 '一ㅓ刀(ᄒᆞ나권)'과 같이 서수사에 연결되는 예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15세기 국어의 'ᄒᆞ나ᄒᆡᆫ'과 대응하여 '첫째로는'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환경의 'ㅓ'가 '자격'의 '~로'의 의미를 갖는다.

(1) 가. 或ᄂᆞᆫ 天上ᄋᆡ 七 因陀網 如ᄒᆞᆫᄀᆞᆺ ᄀᆞᆮᄒᆞ 〈화엄15:13〉
나. 他方七 大衆ᄒᆞ 及ᄒᆞᆫ 以ᄡᅳ 化衆ᄒᆞ 此ᄂᆡ 三界七 中ᄋᆡ 七 衆ᄒᆞ ᄂᆞᆯ 十二大衆ᄀᆞ 〈구인02:07-08〉
다. 善男子ᄋᆞ 是ᄂᆡ 月光王ᄀᆞ 已ᄒᆡ 於過去七 十千劫七 中ᄋᆡ 七 龍光王佛法七 中ᄋᆡ ᄒᆞᆫᄋᆞ 〈구인11:20-22〉

(1가)는 '천상에 있는 인드라망'으로, (1나)는 '三界 중에 있는(존재하는, 사는) 중생'으로 해석된다. NP1에서는 '天上, 三界中'과 같은 처소가 제시되고 NP2에서는 여기에 존재하는 무정물(인드라망), 유정물(중생)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다)는 '과거 천만겁 중에 있었던(행해졌던) 龍光王의 佛法'으로 해석되는데 'NP1'에서는 '시간'이 제시되고 'NP2'에서는 '그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 밖에 '~에 있는'으로 해석되는 첫 번째 유형의 예들을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4]

(2) 一切世間ᄋᆞ 七 諸天魔梵沙門婆羅門乾闥婆阿修羅等〈화엄08:16-18〉, 大海ᄋᆞ 七 一滴水〈화엄09:03〉, 大地ᄋᆞ 七 一微塵〈화엄09:09〉, 大海ᄋᆞ 七 金剛聚〈화엄14:13〉, 一塵內ᄋᆞ 七 刹〈화엄15:10〉, 一切世間ᄋᆞ 七 技術〈화엄19:07〉, 一一國土中ᄋᆞ 七 一一佛及大衆〈구인02:06-07〉, 他方佛國中ᄋᆞ 七 南方…東方…北方…西方〈구인03:06-11〉, 南方ᄋᆞ 七 法才菩薩〈구인03:06-08〉, 東方ᄋᆞ 七 寶柱菩薩〈구인03:08-09〉, 北方ᄋᆞ 七 虛空性菩薩〈구인03:09-10〉, 西方ᄋᆞ 七 善住菩薩〈구인03:10-11〉, 六方ᄋᆞ 七ᄒᆞ〈구인03:11〉,[5] 空中ᄋᆞ 七 花〈구인

4) NP1과 NP2에 나타나는 명사와 명사구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제시하기 위해 'ᄋᆞ ᄒᆞ'을 제외한 나머지 구결들은 삭제하였으며 한문 원문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수식어들은 생략하여 제시하였다.
5) 'ᄒᆞ'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구결자 중에 하나로 일반적으로 의존명사

14:12-13〉, 頂上ᄀᆞᄐᆞ 白蓋〈금광06:18〉, 空谷ᄀᆞᄐᆞ 響〈금광13:15〉, 定心中ᄀᆞᄐᆞ 慧〈유가06:16-17〉, 此中ᄀᆞᄐᆞ 義〈유가25:12〉

한편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NP1+ᄀᆞᄐᆞ+NP2'는 'NP1+ᄀᆞᄐᆞᄂᆞᆫᄀᆞ+NP2'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3) 가. 於此 正法ᄀᆞᄐᆞᄂᆞᆫᄀᆞ 補特伽羅ㅣ 〈유가15:08〉
나. 於二處所ᄀᆞᄐᆞᄂᆞᆫᄀᆞ 十一種 障ㄹ 〈유가28:04-05〉

(3가)는 '正法에 있는 보특가라(衆生·人)'로, (3나)는 '二處所에 있는 11가지의 장애'로 해석된다. 석독구결의 'ᄂᆞᆫ-'는 존재동사로 해석되기도 하므로 '-ᄀᆞᄐᆞᄂᆞᆫᄀᆞ'은 '-ᄀᆞᄐᆞ 有ᄀᆞᆫᄀᆞ, -ᄀᆞᄐᆞ 處ᄂᆞᆫᄀᆞ'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때 (3가)는 '正法 ᄀᆞᄐᆞ 補特伽羅'로, (3나)는 '二處所 ᄀᆞᄐᆞ 十一種障'으로 교체해도 의미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ᄀᆞᄐᆞ'의 두 번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선행명사에 집단·부류 또는 범주가 제시되고, 후행명사에는 그 집단이나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나 그 범주의 등급이 제시되는 유형이다. 이때의 'ᄀᆞᄐᆞ'은 '~중에서, ~가운데, ~의'로 해석되고 'ᄀᆞᄐᆞ' 구성 안의 처격조사는 '제한된 일정한 범위'로 해석된다.

(4) 가. 時ᄒᆞ 十六 大國王ᄃᆞ 中ᄀᆞᄐᆞ 舍衛國主ㅣㄴㄷᄑᆞ 波斯匿王ㅣ
〈구인02:24-25〉

로 파악되고 있는 형태이다. 구결자 'ᄒᆞ'가 '子(아들자, 놈자)'에서 온 것으로 보아 유정성의 의존명사로 간주되기 쉽지만 무정물로 해석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ᄒᆞ'의 의미적 자질을 [+有情]만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다(남성우·정재영 1998). 그러나 제시된 '六方ᄀᆞᄉᆞᄒᆞ'는 앞부분에서 '東·西·南·北方에 있는 菩薩들'을 나열한 후 '六方ᄀᆞᄉᆞᄒᆞ'가 연결되는 문맥이므로 이때의 'ᄒᆞ'도 '菩薩'에 준하는 [+有情]의 명사로 파악된다.

나. 信ㄱ 道ㅋㅌ 元矣支ㅣ分 功德ㅌ 母ㅣ尸爲入乙ㅅㅁㅏㄱ
〈화엄09:20〉

다. 是 金光明微妙經典ㄱ 衆經ㅋㅌ之 王ㅣ分ㅅㅁㄱ 入ㅠㅜ
〈금광13:24-14:01〉

(4가)는 'NP2'에 어떤 집단에 속하는 대상이 제시된 유형이고 (4나·다)는 'NP2'에 집단에 속한 대상의 등급 상태가 제시된 유형이다. (4가)는 '십육 대국왕 중에 사위국의 주인이신 바사닉왕이'로 해석된다. 'NP1'에 국왕들의 집단이 제시되고 'NP2'에 이 집단에 속한 대상인 바사닉왕이 제시되어 있다. (4나)는 '信은 道중에서(道중의) 으뜸이며'로 해석되고, (4다)는 '이 金光明微妙經典은 여러 경전 중에서(중의) 왕이며'로 해석된다. 각 문장의 주제어(信, 金光明經)가 특정 범주로 제시된 '道'나 '衆經'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등급이 직접적 혹은 비유적으로 제시되어 있다.[6]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ㅋㅌ'은 처격과 관형격이 결합된 의미보다는 처격이나 관형격 둘 중 한쪽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4가)의 '中ㅋㅌ'은 '中ㅋㅏ'로 해석해도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며, (4나)에서는 '道ㅋㅌ 元'과 바로 뒤에 나타나는 '功德ㅌ 母'가 동일한 구조로 대구를 이루고 있어 'ㅋㅌ'과 '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다)에서는 한문 원문에 '之'가 나타나 있어 주목된다. 구결에서는 명사구 사이에 나타나는 '之'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관형격 'ㅌ'을 현토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4다)의 'ㅋㅌ' 역시 '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4)의 'ㅋㅌ' 구성과 유사한 구문에 'ㅋㅏ'나 'ㅌ'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 이들 유형에 속하는 나머지 예들을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道樹ㅋㅅ 最勝<화엄15:19>, 文中ㅋㅅ 王<화엄19:06>, 邑中ㅋㅅ 主<화엄19:08>, 人中ㅋㅅ 樹<구인11:09>, 人中ㅋㅅ 師子<구인11:11>, 獸ㅋㅅ 王<금광06:16>, 法藏ㅋㅅ 第一財<화엄09:23>, 生圓滿中ㅋㅅ 外<A유가02:16-17>"

(5) 가. 云何 於一切 衆生ㄴ 中ᄀᆞᄒᆞᆫ 第一ㅣ尸爲 … ᄉᆞᄆᆞᆫᄃᆞᆫᄒᆞᆫᄀᆞᄒᆞᆫㅁ
〈화엄02:07-09〉
나. 於彼 衆ㄴ 中ᄀᆞᄒᆞᆫ 上首ㅣ尸爲ᄉᆞᄆᆞᆫᄃᆞᆫᄒᆞᆫᄀᆞᆫ〈화엄19:21〉
다. 三界ㄴ 王ㅣ亖〈구인11:03〉

(5가·나)는 'ᄀᆞᄒᆞᆫ' 구성과 동일한 환경에 처격조사 'ᄀᆞᄒᆞᆫ'가 사용된 예이고 (5다)는 'ᄀᆞᄒᆞᆫ' 구성과 동일한 환경에 관형격조사 'ㄴ'만 사용된 예이다. (5가)는 '일체 중생 중에서 제일이 되-', (5나)는 '저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로 해석된다. 'ᄀᆞᄒᆞᆫ'로만 실현되어도 의미상 (4나)의 'ᄀᆞᄒᆞᆫㄴ'과 차이가 없다. 또한 (5다)는 (4다) 'ᄀᆞᄒᆞᆫㄴ'과 동일한 구문으로, (5다)에서는 'ㄴ'으로만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ᄀᆞᄒᆞᆫㄴ(읫)

석독구결에는 'ᄀᆞᄒᆞᆫㄴ' 이외에 'ᄀᆞᄒᆞᆫㄴㅣ'이라는 형태도 확인되는데 처격·관형격 복합조사로 파악되는 'ᄀᆞᄒᆞᆫㄴㅣ'은 모두 네 번 나타난다.[7] 명사구와 연결된 예 하나와 동명사어미에 연결된 예 하나, 그리고 명사구 보문에 연결된 두 예가 발견된다. 먼저 명사에 연결된 예부터 살펴본다.

(6) 而亖 衆生ᄀᆞᄒᆞᆫㄴㅣ 第二導師ㅣ尸爲ᄉᆞᄆᆞᆫᄃᆞᆫᄒᆞᆫᄀᆞᆫㅣ〈화엄02:17〉
: [而爲衆生第二導師] 중생의 둘째 도사가 되느니라
〈역경원 번역〉

위 문맥은 文殊菩薩이 智首菩薩에게 보살의 공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으로, '衆生'에 'ᄀᆞᄒᆞᆫㄴㅣ'이 현토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구결토

7) 석독구결에서는 복합조사가 아닌 'ᄀᆞᄒᆞᆫ' 구성이 많이 나타난다. 주로 '-ᄀᆞᄒᆞᆫㅣㅅㄱ'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때의 'ᄀᆞᄒᆞᆫ'은 선어말어미로, 복합격조사와는 별개의 형태이다.

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법적 모순을 보여 오기일 가능성이 높은 구결토이다.

'ᄀᆞᆯᄯᅴ'은 특이처격의 'ᄀᆞ'와 관형격조사 'ᄯᅴ'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합격 'ᄀᆞᆯᄯᅴ'에 선행하는 명사도 특이처격을 취하는 명사여야 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선행 명사는 '衆生'이다. [+유정물] 자질을 갖는 명사 '衆生'은 특이처격조사 '이/의'를 취하는 명사가 아니다. 이런 사실은 'ᄀᆞ'가 처격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석해야 함을 말해준다. 'ᄀᆞ'가 특이처격조사가 아니라면 'ᄀᆞ'는 관형격조사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ᄀᆞ'가 관형격조사라면 관형격 뒤에 다시 관형격 'ᄯᅴ'이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런 해석도 문법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의 'ᄀᆞᆯᄯᅴ'은 복합격조사와는 무관한 잘못된 구결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6)의 'ᄀᆞᆯᄯᅴ'이 잘못된 구결인가에 대해서는 뒤의 3장에서 다시 논의해볼 것이다.

다음은 동명사절과 명사구보문에 연결된 'ᄀᆞᆯᄯᅴ'이다.

(7) 是 如ᄒᆞᆫᄀᆞ 二十種 法ᄋᆞᆯ 是ᄋᆞᆯ 奢摩他ㅅ 毘鉢舍那ㅅᄀᆞᆯᄯᅴ 品ᄋᆡ 心一境性ᄋᆞᆯ 證得ㄴᆞᄆᆞᆯᄀᆞᆯᄯᅴ之 所對治ㅣㄴᆞᄒᆞᆫᄃᆡ 〈유가14:16-17〉

(8) 가. 此ㅣ 菩薩ᄀᆞ 四天王衆天ᄋᆡ 三十三天ᄋᆡ 夜摩天ᄋᆡ … 善見天ᄋᆡ 善現天ᄋᆡ 色究竟天ᄋᆡㄴᆞᄉᆞᆷᄀᆞᆯᄯᅴᄒᆞᄉᆞᆷᄋᆞᆯ 聞ᄂᆞᆫ
〈화소14:06-15:01〉

나. 一ᄀᆞ 文ᄋᆡ 一ᄀᆞ 句ᄋᆡㄴᆞᄉᆞᆷᄀᆞᆯᄯᅴ 義理ᄀᆞ 難ㅣᄒᆞᆯᄉᆡ 盡ᄂᆞᆫᄀᆞᆯᄯᅴㅣ
〈화소25:10-11〉

(7)은 동명사어미 '-ᄆᆞ' 뒤에 'ᄀᆞᆯᄯᅴ'이 연결된 예이고, (8)은 'ᄉᆞᆷ(ᄆᆞ/동명사+ㅣ/의존명사)'로 구성된 명사구보문에 'ᄀᆞᆯᄯᅴ'이 연결된 예이다.

(7)은 "이 같은 20종 법을, 奢摩他와 毘鉢舍那의 品으로 心一境性을

證得함에의 所對治라고 한다."로 해석된다. 여기서 '所對治'이란 '대항하여 다스려야 할 대상'을 의미하므로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 정도로 이해해도 좋다. 따라서 예문 (7)은 "앞서 언급한 20가지는 心一境性을 이룰 때에 생기는/이루는 곳에 있는(존재하는) 장애이다" 정도로 의역할 수 있다. 이때 '所對治'가 존재하는 배경이나 시간이 'ᄀᆞᆫᄃᆡ'의 선행절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ᄋᆡ ᄃᆡ'의 첫 번째 의미 유형과 동일하다.

(8가)는 "이 보살은 사천왕중천이니 삼십삼천이니 야마천이니 … 선견천이니 선현천이니 색구경천이니 하는 곳에 있는(사는) 이가 하는 것을 들으며"로 해석된다.[8] (8나)는 "한 문장이나 한 구절이나 하는 곳에 있는(담겨 있는) 의미와 이치는 어렵게야 다할 수 있다."로 해석된다. 보문절에 연결된 'ᄀᆞᆫᄃᆡ'도 'ᄋᆡ ᄃᆡ'의 첫 번째 유형인 '~에 있는'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7)과 (8)을 살펴보면 'ᄀᆞᆫᄃᆡ'은 節 뒤에서 사용된 예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ᄋᆡ ᄃᆡ'은 句에만 연결되는 반면 'ᄀᆞᆫᄃᆡ'은 節 뒤에 연결되므로 NP1이 句인가 節인가가 'ᄋᆡ ᄃᆡ'과 'ᄀᆞᆫᄃᆡ'을 구분 짓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2.3. ᄐᆞᆫ(귓)

처격·관형격 복합조사에는 'ᄋᆡ ᄃᆡ'과 'ᄀᆞᆫᄃᆡ' 이외에 'ᄐᆞᆫᄃᆡ'이라는 형태도 나타난다.

---

8) 'ᄉᆞᄂᆞᆷᄃᆞᆯᄒᆞᄒᆞᄉᆞᆷᄋᆞᆯ'에서 'ᄒᆞᄉᆞᆷᄋᆞᆯ'의 구성은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ᄒᆞᄉᆞᆷᄋᆞᆯ'는 'ᄒᆞ(의존명사)+ᄉᆞ(동명사+의존명사)+ᄋᆞᆯ(대격조사)'로 분석할 수 있는데, 명사 뒤에 동명사가 직접 연결될 수 없으므로 'ᄒᆞ'와 'ᄉᆞ' 사이에 'ㅅㅡ'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고 해석하였다.

(9) 謂ㄱ 方便ㅁ 止觀品乙 修ㄴ亽ㄴ 時十ㄴ 於諸 法 中ㅋ十 有ㄴㄱ
所ㄴ 忘念ㅂㅁ 〈유가11:08-09〉

'十ㄴ'은 (9)에 제시된 용례가 전부이다. 유일례이기 때문에 '十'가 '쁴'의 전훈독 표기이거나[9] 판독의 오류 또는 오기는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의 한문 원문은 [謂方便修止觀品時於諸法中所有忘念]으로, '時'는 원문 구조상 관형어보다는 부사어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동국대 역경원〉 번역에서도 "말하자면 방편으로 지관품(止觀品)을 닦을 때에 제 법(法)에 대해서 망실(忘失)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로 번역하여 '時'를 처소의 부사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時十ㄴ'의 '十ㄴ'가 복합격조사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十ㄴ'를 복합격조사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왼쪽의 원문 이미지를 보면 구결자의 필체가 또렷하고 분명하므로 판독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다. 그리고 '[[…時十ㄴ][…所ㄴ[忘念]ㅂㅁ]'처럼 '時'가 '妄念'을 이중으로 수식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時'가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가 된다 해도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한 석독구결에서 '時'의 처격형은 '時十' 또는 '時ㅗ十'로 실현되므로 여기서의 '十'도 전훈독 표기자가 아니라 처격조사로 보아야 마땅하다.


유가11:09

이렇게 '十ㄴ'을 처격·관형격 복합조사로 파악한다면 (9)는 "즉 方便으로 止觀品을 닦는 때에 있는(존재하는/생기는) … 忘念이며"가 된다. 'NP1'에는 시간이 제시되고 'NP2'에는 그 시간에 일어난 행위(妄念)가 제시되는, 'ㅋ十'의 의미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유형에 속함을 알

9) 기원적으로 '쁴'는 '삐[時]'에 처격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는 '쁴브터', '쁴로'와 같은 형태들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쁴' 전체가 하나의 명사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석독구결시기에도 어휘화된 명사 '쁴'가 존재했다면 '時十ㄴ'에서 '時十'는 '쁴'를 표기한 전훈독자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수 있다.

3. 복합조사의 형태 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한국어의 복합조사는 '[$_{NP}$[$_{NP3}$[$_{NP2}$[$_{NP1}$[$_{NP0}$X]][$_{C.M1}$α]][$_{C.M2}$β]][$_{C.M3}$δ]]]'의 구조를 갖는다(이광호 1991). 이는 'αβδ'라는 복합조사가 공시적으로는 'α+β+δ'처럼 개별 형태로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현대국어의 '-에의'가 처격조사 '에'와 관형격조사 '의'로, 15세기 국어의 '앳'이 처격조사 '애'와 관형격조사 'ㅅ'로 분석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NP1+ᄀᆞᄆᆞ+NP2' 역시 선행명사구에 처격조사가 연결되고 이 조사구 전체에 관형격조사가 결합한 후 후행명사구와 연결되는, '[[NP1+ᄀᆞ]ᄆᆞ+NP2]'의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NP1+ᄀᆞ'는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해야 하는 처소의 부사어이지만 'ᄆᆞ'의 개입으로 부사어가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통사적 파격이 허용된다.[10] 문법적인 파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처격조사가 연결되어 있는 한 필수적으로 이를 지배하는 동사(형용사)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미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NP1+ᄀᆞ'와 'NP2'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다양한 동사(형용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도출된 동사가 관형어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 구결 자료의 'ᄀᆞᄆᆞ'이든 언해 자료의 '앳'이든 '~에 V하는'으로 해석되는 구문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을 살펴볼 때 'ᄀᆞᄆᆞ' 구성에서 'ᄀᆞ'는 처격조사의 기능을 오롯이 유지하고 있고, 'ᄆᆞ' 역시 형태적·통사적으로 관형격조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10) 임홍빈(1981)에서는 'ㅅ'을 통사적 파격을 해소하는 요소로 설명한 바 있다. 가령 '世尊ᄋᆞᆫ 世界예 ᄆᆞᆺ 尊ᄒᆞ시닷 ᄠᅳ디라<月釋1:釋序5a>, 나ᄅᆞᆯ ᄌᆞ고맛 거슬 주어시든<釋詳6:44b>'과 같은 예처럼 종결어미 '-다'가 명사와 연결되거나 어간 'ᄌᆞ고마-'가 명사와 연결되는 통사적 파격이 'ㅅ'으로 인해 回復된다고 설명하였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𐐏𐐯' 역시 공시적으로 처격 '𐐏'와 관형격 '𐐯'으로 분석될 수 있는 형태라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나 문제는 석독구결 자료에 '𐐏'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데 있다. '𐐏𐐯'의 '𐐏'는 처격조사이고 공시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𐐏'라는 처격조사가 석독구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석독구결 자료가 다섯 종의 제한된 자료밖에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𐐏'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정 짓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그러므로 '𐐏'의 부재를 자료 상의 우연한 공백으로 처리하고 향가에 나타나는 처격조사 '아(良)'를 유추적으로 적용하여[11] '𐐏𐐯'을 '𐐏'와 '𐐯'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𐐏'는 석독구결 시기에 이미 쇠퇴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현존하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격조사가 2000여 회 출현하는 것을 보면 석독구결에 '𐐏'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연한 공백이라기보다는 형태의 부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는 자토 석독구결뿐만 아니라 점토 석독구결 그리고 이두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형태인데(이승재 1992:114)[12] 이것만 보아도 처격 '아'는 향가 시기에만 전용되었던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향가의 '아(良)'가 다른 형태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10) 가. 此良 夫作 沙毛叱等耶 〈礼敬諸佛歌 10행〉

---

11) 향가에는 황선엽(2006)에서 제시한 "枝良<際亡7>, 彌陀刹良<際亡9>, 月良<處容1>, 此良<禮敬10>, 手良每多<廣修6>, 前乃<願往3>, 群良<請佛8>" 등의 예를 통해 처격 '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2) 이두의 경우 <大明律直解>에서 '良'가 뒤늦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은 안병희(1985), 장세경(2001)의 기술처럼 '良中'의 생략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두에서도 '아(良)'라는 처격을 설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나. 若 能ᄀᆞᆫ 於此ᄅᆞ十 餘ᄃᆞᆫ 无ᄒᆞᆫ 永斷ㅅᄆᆞᆫ入乙 名下 爲極淨道
果乙 證得ㅅᄀᆞᆯᄀᆞᆮᄀᆞᆫᄎᆞᆫ ㅣ 〈유가30:10-11〉

(11) 가. 一等隱 枝良 出古 〈祭亡妹歌 7행〉
나. 不退地ᄀᆞᆫ十 生ㅅᄀᆞᆫ 師子勝人乙 〈금광14:06-07〉
나'. 二 自性苦ㅣᄀᆞᆯ 无暇處ᄀᆞᆫ十 生ㅅᄆᆞᆫ矣ᄀᆞᆫ 〈유가21:13-14〉

(10가)와 (11가)는 향가에 사용된 처격 '아(良)'의 용례를 제시한 것이고 (10나)와 (11나·나')는 (10·11가)와 유사한 구문에 나타난 석독구결의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10)을 통해 '이에, 여기에서'라는 표현이, 향가에서는 '此良'으로 석독구결에서는 '此ᄅᆞ十'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良'가 'ᄅᆞ十'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1)을 통해 '~에서 나다'라는 구문이, 향가에서는 '良'로 석독구결에서는 'ᄀᆞ十'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良'가 'ᄀᆞ十'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가 나타날 만한 위치에서도 'ᄀᆞ'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ᄀᆞ'의 미출현이 자료상의 우연한 공백이 아니라 석독구결에 'ᄀᆞ'라는 형태가 부재했음을 방증한다. 향가에 존재했던 단독 처격 '아(良)'는 석독구결에 이미 쇠퇴한 형태였고 '아'의 위치를 다른 형태의 처격조사들이 대체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석독구결의 'ᄀᆞ七'이 향가의 '阿叱'을 형태를 계승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의 쇠퇴로 인해 'ᄀᆞ七'의 'ᄀᆞ'가 갖는 문법적 기능은 석독구결에서 사용되는 다른 처격조사들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처격조사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석독구결의 처격조사에는 5종의 형태가 확인되는데, 구성 형태에 따라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형 : ᄀᆞᆫ(긔), ᄋᆞ(의)
복합형 : ᄋᆞᆯᄀᆞᆫ(아긔), ᄋᆞᄋᆞᆫ(의긔), ᄂᆞᆫᄀᆞᆫ/ᄉᆞᆫᄀᆞᆫ(여긔)

단독형 처격조사에는 'ᄀᆞᆫ, ᄋᆞ', 두 가지 형태가 확인된다. 먼저 'ᄀᆞᆫ(긔)'는 단독형 처격조사 중에서는 많은 용례가 확인되는 형태로 시간·위치명사인 '時', '後', '世', '上', '彼' 뒤에 결합한 예들이 확인된다.[13] 한편 'ᄀᆞᆫ'가 주제의 보조사 'ᄀᆞ'과 함께 'ᄀᆞᆫᄀᆞ'으로 나타날 때는 '一·二·四' 등과 같은 序數詞와 시간성 의존명사 'ᄃᆡ(다)'에 연결되기도 한다. 그리고 'ᄀᆞᆫ'는 'ᄉᆞᆫ(리:ㄹ/동명사어미+이/의존명사)' 뒤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AᄉᆞBᄉᆞ…ᄉᆞᄂᆞᆫᄉᆞᆫᄀᆞᆫ'의 형식을 취하는 나열구문의 명사들까지 포함한다면 좀 더 다양한 장소명사와 추상명사들의 예들을 확보할 수 있다.

'ᄋᆞ(의)'는 주로 관형격조사로 사용되는 형태이지만 처격으로 사용된 예가 5회 확인된다. 형태적으로는 관형격조사와 동일하지만 처격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15세기 국어의 특이처격 '이/의'와 동일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향가에서는 '夜衣, 此矣, 彼矣, 寢衣, 前衣, 邊衣'처럼 비교적 다양한 체언과 결합하는 예가 나타나지만 석독구결에서는 '前' 뒤에 사용된 '前ᄋᆞ'밖에 확인되지 않아 그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복합형 처격조사에는 'ᄋᆞᆯᄀᆞᆫ, ᄂᆞᆫᄀᆞᆫ, ᄋᆞᄋᆞᆫ' 세 가지 형태가 확인된다. 먼저 'ᄋᆞᆯᄀᆞᆫ(아긔)'는 단독형, 복합형 처격조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처격조사이다. 'ᄋᆞᆯᄀᆞᆫ'는 무정물 체언에만 연결되는데 체언의 종류는 시간·장소와 관련된 명사에서부터 추상명사까지 의미

13) 'ᄀᆞ'는 '佛', '菩薩'과 같은 유정 체언에 결합하는 예들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처격과 여격이 미분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처격조사의 예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時', '後', '彼'는 'ㅐᄀᆞ'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ㅐ'는 선행체언의 말음첨기인 것으로 파악해 모두 'ᄀᆞ'의 용례에 포함시켰다.

의 제한 없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양성모음이나 음성모음 'ㅣ'모음 뒤의 체언에도 두루 사용되어 석독구결의 대표적인 처격조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𠃌十'는 節 뒤에서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명사와 명사구에만 결합한다.[14]

'𠂉十'는 '𠃌十' 다음으로 출현 횟수가 많은 형태이지만 다수의 예가 유정체언과 결합해 여격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라 순수한 처격은 많지 않다. 선행하는 체언으로는 '此, 彼, 事, 世' 등의 예가 전부이지만 'A𠃌B𠃌…𠃌ノ仝𠂉十'의 형식을 취하는 나열구문의 명사들까지 포함한다면 '宮, 室'과 같은 장소명사와 '百年, 千年, 百千年'과 같은 시간명사, '法, 僧, 戒, 學'과 같은 추상명사의 용례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𠂉十'는 동명사 어미 뒤(명사절)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𠃌十'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亠十(여긔)'는 그 출현 횟수가 22회로, 횟수만 본다면 적지 않은 빈도를 보인다. 그러나 '上亠十〈금광06:19〉' 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時' 뒤에서 사용된 예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亠十'는 선행 체언과의 결합 제약이 매우 강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𠃌七'의 문제로 돌아오자.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𠃌七'은 항상 명사나 명사구에 연결된 예만 나타나고 동명사나 명사구 보문과 연결되는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선행하는 명사의 종류에 있어서도 시간·장소·추상명사 등 다양한 명사와 연결되고 [+유정] 자질의 명사와 나타나는 법이 없다는 점에서 '𠃌十'가 보여주는 통사적 환경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𠃌七'에 선행하는 명사들이 처소의 부사어로 실현될 때 모두 '𠃌十'를 취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4) 이두의 '良中'은 1021년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에서 처음 나타난 후, 고려시대 이두를 대표하는 보편적인 처격 형태로 사용된다. 이두의 '良中' 역시 동명사어미나 형식명사에 통합되는 일 없이 일반 보통명사에만 통합되는 특징을 갖는다(이승재 1992:113).

‘3七’의 선행 명사였던 ‘中, 世間, 大海, 大地, 內, 天上, 東 · 西 · 南 · 北方, 頂上, 空谷, 道, 法藏, 獸, 道樹’ 가운데, 그 예가 확인되지 않는 ‘空谷, 獸, 道樹’를 제외하면 이들이 처격의 부사어로 실현될 때 모두 ‘3+’만을 취한다. 또한 ‘3七’은 ‘3+ソ1’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형태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3七’의 ‘3’가 ‘3+’에 대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ラ七’의 분석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다. ‘ラ七’ 역시 형태적으로는 특이처격조사 ‘ラ’와 관형격조사 ‘七’으로 분석되지만 ‘ラ七’에 나타나는 처격조사는 ‘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ラ+’에 대응한다. ‘ラ+’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명사절 뒤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인데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ラ七’이 보여주는 환경이 바로 그러하다. 또한 15세기 국어에서 명사형어미 ‘-옴/움’이 연결된 명사절에서는 특이처격의 ‘읫/잇’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ラ七’의 ‘ラ’가 특이처격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ラ七’은 ‘ラ’와 ‘七’이 결합한 형태가 아니라 ‘ラ+’와 ‘七’이 결합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처럼 ‘ラ七’을 ‘ラ+’와 ‘七’의 결합 형태로 파악한다면 앞서 2.2에서 잘못된 구결토처럼 보였던 ‘衆生ラ七’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2.2의 (6)번 예문을 다시 인용한다.

(12) 而灬 衆生ラ七 第二導師リ尸爲入乙ソ厶ナㅎ七丨〈화엄02:17〉
: [而爲衆生第二導師] 중생의 둘째 도사가 되느니라 〈역경원 번역〉

(12)의 ‘ラ七’을 특이처격의 ‘ラ’와 ‘七’으로 분석한다면 특이처격조사가 ‘衆生’이라는 유정물에 연결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국 ‘衆生ラ七’은 오기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구결토이다. 그러나 ‘ラ七’을 ‘ラ+’

와 '七'이 결합된 형태로 파악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구결토가 된다. 처격조사 '긔十'는 [+유정] 자질의 명사와 연결되어 여격에 해당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처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衆生긔七'을 '*衆生긔十七'에서 '十'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12)는 '중생에게의 제2도사가 될 수 있다'로 파악되어 올바른 현토가 될 수 있다. 이때 '衆生긔七'의 의미는 '중생에게'나 '중생의'처럼 처격이나 관형격 한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것은 'ᄀᆞᆫ七'의 두 번째 유형에서 확인했던 특징에 부합한다. 이런 점에서 '衆生긔七'은 잘못된 현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긔七'의 '긔'가 '긔十'에 대응되는 형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용례가 될 수 있다.[15]

이와 같이 'ᄀᆞᆫ七'의 'ᄀᆞ'가 문법적으로는 'ᄀᆞ十'와 일치하고 '긔七'의 '긔'가 '긔十'와 일치한다면 이에 대한 해석으로 'ᄀᆞᆫ七'은 'ᄀᆞ十七'의 생략형이고 '긔七'은 '긔十七'의 생략형이라고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처격·관형격 복합조사가 'ᄀᆞ十'와 '七', '긔十'와 '七'이 결합한 형태라면 왜 '*ᄀᆞ十七', '*긔十七'으로 나타나지 않고 'ᄀᆞᆫ七'과 '긔七'만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구결자료를 비롯한 차자표기 자료에서 생략 표기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특이한 현상을 접할 때 생략 표기로 해석해 볼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생략 표기는 ①온전한 표기의 출현이 한 번이라도 확인되거나 ②특정 형태의 복기가 문법적인 필연성을 가질 때 성립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6] 'ᄀᆞᆫ七'과 '긔七'이 생략된 형태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

15) 마지막으로 '十ㅊ'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十ㅊ'은 하나의 용례밖에는 나타나지 않아 논의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나타나는 한 예만 놓고 볼 때 '十ㅊ'은 처격조사 '十'의 기능과 동일하므로 '十ㅊ'은 표면형 그대로 '十'와 'ㅊ'이 결합한 형태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16) 특정 문법 형태의 복기가 필연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가

어도 두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에 '𞟠十七'과 '𞟢十七'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①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처격과 관형격이 연결된 것은 문법적으로 합당한 구성이며 '十'의 복기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②의 조건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𞟠七'과 '𞟢七'이 '*𞟠十七', '*𞟢十七'의 생략 표기라는 가설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현 상태에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𞟠七'의 '𞟠'가 보이는 문법적 기능이 '𞟠十'와 일치한다는 사실이며, 또한 '𞟢七'의 '𞟢'가 보여주는 문법적 기능이 '𞟢'가 아니라 '𞟢十'와 일치한다는 사실뿐이다.

4. 맺음말

한국어에는 처격과 관형격이 결합한 복합격조사가 존재한다. 현대국어의 '에의', 15세기 국어의 '앳/엣'에 대응되는 형태가 석독구결에서도 확인되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던 '𞟠七'이라는 형태 이외에 '𞟢七'과 '十七'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15세기 국어의 '앳'은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석독구결의 '𞟠七'은 두 가지 의미만으로 나타나 단조로운 유형을 갖는다.

첫 번째 유형은 선행명사에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이 제시되고, 후행명사에는 그 장소나 시간에 존재하는 유정물·무정물(사건)이 제시된 유형이다. 이 유형의 '𞟠七'은 '~에 있는, ~에 존재하는'으로 해석되고, 이때의 '𞟠七'은 '𞟠十ソ丁'으로 교체해도 의미상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은 선행명사에 집단·부류·범주가 제시되고, 후

령 동명사어미 뒤에 선어말어미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결토일 경우 그 사이에 의존명사와 계사의 복기가 필연적이다.

행명사에는 그 집단이나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나 등급이 제시되는 유형이다. 이때 '𗅆𗍞'은 '~중에서, ~가운데, ~의'로 해석되어 처격이나 관형격 두 가지 중 한 쪽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도 '𗅆𗍞'의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한 구문에서 처격이나 관형격 한 쪽만 실현된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𗅆𗍞'뿐만 아니라 '𗏵𗍞'과 '𗐊𗍞'도 이 두 가지 의미 유형으로만 해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의미 유형에서는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𗅆𗍞'과 나머지 '𗏵𗍞'은 사용 환경에서 차이를 보였다. '𗅆𗍞'은 명사나 명사구 뒤에서만 사용되는 반면 '𗏵𗍞'은 명사구보다는 동명사나 명사구 보문 뒤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즉 복합조사가 句 뒤에서만 專用되고 있는지 節 뒤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𗅆𗍞', '𗏵𗍞'의 사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된다.[17]

한편 처격·관형격 복합조사에서 '처격'과 '관형격'은 공시적으로 분석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𗅆𗍞' 역시 '𗅆'와 '𗍞'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석독구결에 단독 처격 '𗅆'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자료 상의 우연한 공백이 아니라 형태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良)'라는 단독 처격은 향가 시기에만 사용되고 금방 쇠퇴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향가와 구결 자료를 대비해 보면 처격 '아(良)'가 다른 처격조사로 대체된 정확들도 포착된다. 따라서 석독구결의 '𗅆𗍞'은 형태적으로는 향가의 '阿叱'를 계승한 것일 수 있겠으나 '𗅆'의 문법적 기능은 처격조사 '𗅆𗐊'에 대응되는 모습을 보인다. '𗏵𗍞'의 경우도 유사하다. '𗏵𗍞'은 형태적으로는 처격 '𗏵'와 관형격 '𗍞'으로 분석되지만 '𗏵𗍞'의 '𗏵'가 보여주는 문법적 기능은 '𗏵'가 아니라 '𗏵𗐊'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𗅆𗍞'은 '𗅆𗐊𗍞'의 생략형이고 '𗏵𗍞'은 '𗏵𗐊𗍞'의 생략형

17) '𗐊'은 용례가 한 용례밖에 나타나지 않아 경향성을 논의하는 데에서 제외하였다.

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자표기 자료에서 생략 현상은 '비생략형의 출현'이 전제될 때나 '형태 복기의 문법적 필연성'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데 '𠆢七'과 '𠆢七'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생략형으로 처리하는 기술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현 상태에서는 '𠆢七'의 '𠆢'가 보여주는 문법적 기능이 '𠆢十'와 일치하고, '𠆢七'의 '𠆢'가 보여주는 문법적 기능이 '𠆢十'와 일치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이런 현상은 단일형 처격조사(良, 矣/衣, 中)의 쇠퇴 그리고 복합형 처격조사(良中, 矣中, 亦中)의 발달과 연관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두 · 향가 · 구결 세 자료에 나타난 처격조사들의 기능적 차이와 역학적 발달 관계에 대한 면밀한 구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한다.

參考文獻

高正義(1992), 大明律直解의 吏讀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김선효(2009a), 「의사관형구조 '에의'의 형성 과정과 요인」, 『國語學』 55, 105-124.

金善孝(2009b), 「관형격 조사구에서의 助詞 結合과 變遷」, 『語文硏究』 37, 105-128.

金永旭(2012), 古代國語의 處所格 '-良'에 對한 硏究-八世紀의 金石文, 木簡, 角筆 資料를 中心으로, 『口訣硏究』 28, 33-50.

김지오(2012), 『均如傳 鄕歌의 解讀과 文法』,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南星祐 · 鄭在永(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195-251.

南豊鉉(1977), 「국어 처격조사의 발달」, 『이숭녕선생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남풍현: 1999에 재수록).

南豊鉉(1993),「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東方學誌』81, 연세대 국학연구원, 115-189.
南豊鉉(1999),『국어사를 위한 口訣 硏究』, 태학사.
박형우(2010), 「15세기 특이처격어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163-188.
박진호(1998),「고대 국어 문법」,『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上保敏(2007),「15세기 한국어의 처격 체계」,『口訣硏究』18, 289-315.
徐鍾學(1995),『吏讀의 歷史的 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안병희(1968),「중세국어의 속격조사 'ㅅ'에 대하여」,『이숭녕 박사 송수기념 논총』, 335-345.
安秉禧(1985),「大明律直解 吏讀의 硏究」,『규장각』9, 1-22.
이건식(1996),『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이건식(1997),「釋讀口訣의 省略表記와 難解吐의 解讀」,『國語史硏究』, 태학사, 1055-1090.
李珖鎬(1991),「중세국어 복합격조사의 연구」,『震檀學報』71·72(이광호: 2001, 169~190에 재수록).
이광호(2001),『국어문법의 이해1』, 태학사.
이선영(2006),「한국어의 'NP1+엣+NP2' 구성과 'NP1+ㅅ+NP2' 구성」,『형태론』8-2, 295-311.
이숭녕(1981),『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李丞宰(1992),「高麗時代의 吏讀에 대한 연구」, 태학사.
이승희(2009),「중세국어 'NP1엣 NP2' 구성의 의미 유형에 대한 고찰」,『國語學』54, 197-224.
임홍빈(1981),「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國語學』10, 1-35.
임홍빈(1981/1998),「존재전제와 속격표지 '의'」,『국어문법의 심층2』. 태학사, 169-206.
장세경(2001),『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조재형(2008), 「소위 複合格助詞 '엣'의 통시적 고찰」, 『語文硏究』 36-2, 193-216.

홍윤표(1969), 15세기 국어의 격연구, 『국어연구』 21, 서울대 국어연구회.
황선엽(2006),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 『한말연구』 18, 305-328.
황화상(2003),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 중첩」, 『國語學』 42, 115-140.

주 소: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30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 P635호
E-mail: mugunamu@naver.com
접수일자: 2013. 06. 19.
심사일자: 2013. 07. 30.
게재결정: 2013. 08. 05.

A Study on the combinational case marker of locative and genitive in Seoktokgugyeol

Kim, Zi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forms of locative and genitive combinational case marker in Seoktokgugyeol, to classify those forms by semantic types and to discuss the problems of morphological analysis.

In Seoktokgugyeol, there are three forms of locative and genitive combinational case markers which are '衤ᄀᆞᄉᆡ' and 'ᄭᅡᄉᆡ' and '十ᄉᆡ. In contrast with 'ᄋᆡ' interpreted in various ways in 15th century Korean, those forms are simply divided two semantic types. First type has this following form ; specific location or time presents on an antecedent noun phrase(NP1) and human or inhuman noun(situation) presents on a following noun phrase(NP2). At this time '衤ᄀᆞᄉᆡ' is interpreted as 'be located in/at, exist, happen · take place in/at'. Second type has this following form ; a category presents on an antecedent noun phrase(NP1) and object belonged to the category presents on a following noun phrase(NP2). At this time '衤ᄀᆞᄉᆡ' is interpreted as 'among, of'.

The combinational case marker is synchronically analyzed in locative and genitive, so '衤ᄀᆞᄉᆡ' could be analyzed '衤' and 'ᄉᆡ'. But there is no locative case marker such as '衤' in Seoktokgugyeol and grammatical function of '衤' separated from '衤ᄀᆞᄉᆡ' is completely equal to '衤十'. This is estimated as a transitional phenomenon by extinction of locative '衤'. Although morphologically '衤ᄀᆞᄉᆡ' seems to be in succession to '阿叱' which is appeared on Hyangga, a grammatical function of '衤' is substituted

by ‘ᄀᆞ十’. However, analysis of ‘ᄅᆞ七’ is similar as ‘ᄀᆞ七’. ‘ᄅᆞ七’ is regarded as a combinational form of ‘ᄅᆞ’ and ‘七’, seeing how grammatical function of ‘ᄅᆞ’ separated from ‘ᄅᆞ七’ is completely equal to ‘ᄅᆞ十’.

Key-words: combinational case marker, ‘ᄀᆞ七’, ‘ᄅᆞ七’, ‘十七’, locative case, genitive case, Seoktokgugyeol.